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퀀트/자산배분 Analyst 최재원 cjlw5056@kiwoom.com



▶ 실적모멘텀이 확산된 2Q 어닝시즌

Sum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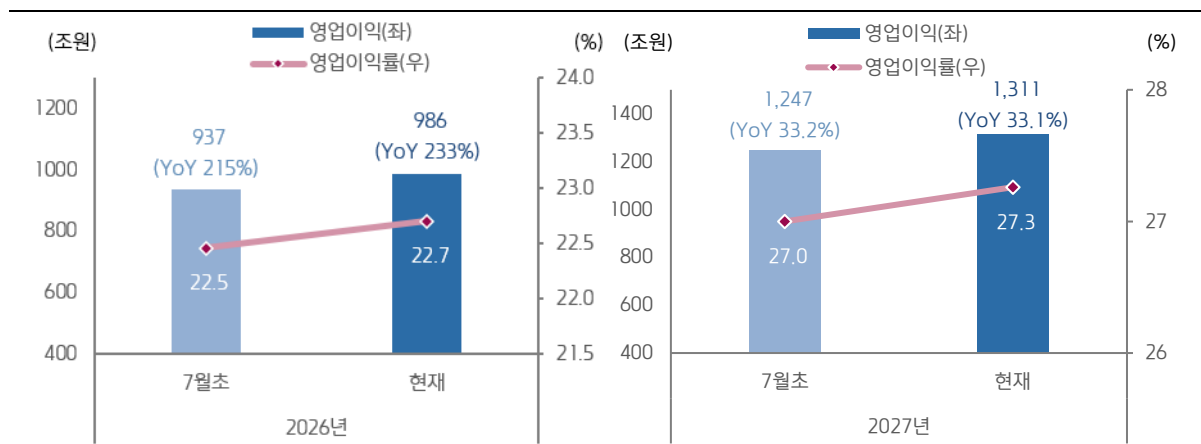
- 코스피 2026년 영업이익 전망 986조원으로 실적 발표 전 대비 +5.2% 상향, 서프라이즈 빈도도 61.8%로 전분기 대비 개선
- 2분기 어닝시즌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AI 밸류체인 수혜 여부에 따라 업종별로 실적 명암이 갈림
- 실적 발표 이후 이익모멘텀이 반도체 쏠림에서 벗어나 여타 업종으로 확산되며 순환매 관점의 대응 유효

어닝 서프라이즈 탄력이 확대된 2분기 실적 시즌

2분기 어닝시즌은 양호한 실적 발표에 힘입어 발표 전과 비교해 연간 실적 전망이 더욱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코스피의 2026년 영업이익 전망은 7월초 937조원에서 현재 986조원으로 +5.2% 상향 조정되었고, 2027년 영업이익 전망 역시 같은 기간 +5.1% 상향되며 1,311조원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실적 전망 상향은 개별 기업 단위의 어닝 서프라이즈 빈도 확대와 궤를 같이 한다. 실적 전망치가 존재하는 코스피 25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적 전망 대비 상회·하회 여부를 살펴보면, 1분기 서프라이즈 비율은 55.6%였던 반면 2분기에는 61.8%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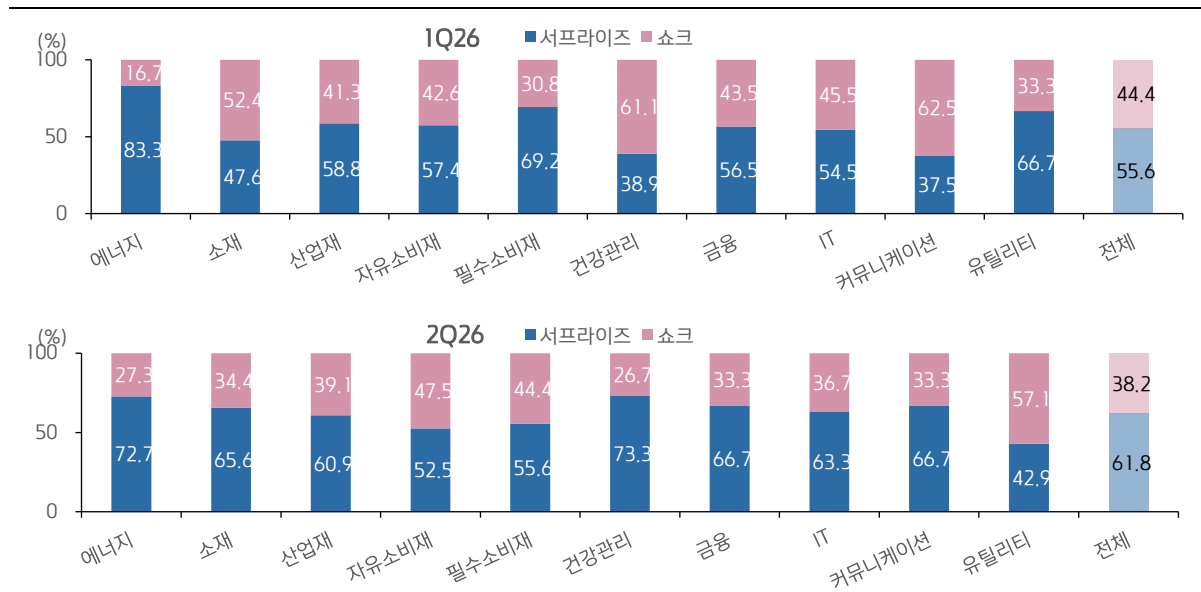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강관리 업종의 어닝서프라이즈 기록 비율이 39%에서 73%로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됐고, 커뮤니케이션서비스(38%→67%)와 소재(48%→66%) 업종 역시 서프라이즈 비율이 큰 폭으로 늘었다. 이외에도 IT(55%→63%)와 금융(56%→67%) 업종은 지난 1분기에 이어 서프라이즈 비율이 재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유틸리티(67%→43%), 필수소비재(69%→56%), 에너지(83%→73%) 업종은 지난 1분기 어닝서프라이즈 비율이 가장 높았던 업종들이었으나 2분기 들어서는 소폭 축소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유틸리티와 필수소비재는 비용 부담이 확대된 가운데 가격 전가가 지연된 영향이 부각되며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코스피, 2026년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전망 변화(실적발표 전/후)



자료: FnGuide 컨센서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코스피, 업종별 영업이익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종목 비율



자료: FnGuide 컨센서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앞서 살펴본 것이 얼마나 많은 기업이 컨센서스를 상회했는지(빈도)에 대한 것이라면, 실적치와 컨센서스 금액 기준으로 보아도 코스피의 2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4.1% 상회한 것으로 집계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2분기 실적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이 업종별로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는 점이다. 원가 상승분을 가격에 전가할 수 있었던 에너지, IT가전, 화학 업종은 정제마진 확대와 재고평가이익에 힘입어 뚜렷한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조선 업종 역시 고선가 수주 물량이 매출로 본격 반영되며 이익을 개선에 힘입어 높은 시장 기대를 상회했다. 이외에도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라는 구조적 수요 증가가 IT하드웨어, 통신서비스, 기계 업종의 실적 개선을 뒷받침하며 이들 업종의 어닝서프라이즈 강도 역시 양호했다. 코스피 거래대금 급증에 따른 자본시장 호황 속 증권 업종은 브로커리지 수익 확대로 서프라이즈를 냈고, 건설-상사자본재 업종도 반도체 하이테크 투자 확대와 방산 수출 호조에 힘입어 실적이 개선됐다.

반면, 비용을 즉시 흡수해야 했던 유틸리티, 운송, 자동차 등은 유가 상승이 비용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며 어닝쇼크로 이어졌다. 특히 유틸리티는 연료비 급등에도 전기요금 동결되면서 업종 중 가장 큰 폭의 쇼크를 냈다. 이들 외에도 실적 컨센서스를 하회하며 어닝쇼크를 기록한 업종들이 존재했는데, 이들은 구조적 부진이라기보다 일회성 요인에 기인한 영향들이 상대적으로 컸다. 소매(유통)와 디스플레이는 희망퇴직 등 인력 구조조정 비용이 실적을 끌어내렸고, 호텔-레저서비스는 대규모 시설 리노베이션에 따른 매출 공백이 부진의 원인이었다.

나머지 업종은 코스피 평균(+4.1%) 안팎의 완만한 수준에서 움직였다. 이중, 반도체는 절대 이익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음에도 이미 높아진 시장 기대치 탓에 컨센서스 수준에 부합하는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며 증시 전반의 어닝서프라이즈 강도를 1분기에 비해 약화시킨 주요 요인이었다. 그 외에도 보험은 증시 호황에 따른 투자손익 개선과 손해를 안정화로 순이익이 늘었고, 은행은 증권 계열사의 비은행 이익 기여 확대가 완만한 개선을 뒷받침하는 등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업종이 과반 이상이었음에도 지난 1분기에 비해 그 강도는 소폭 약해진 것으로 종합해 볼 수 있다.

코스피, 업종별 어닝서프라이즈(실적치와 컨센서스 대비 변화율)



자료: FnGuide 컨센서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코스피, 업종별 2026년 영업이익 성장률(YoY) 7월초와 현재 비교

	코스피	코스닥	에너지	화학	비철 목재	철강	건설 건축	기계	조선	상사 자본재	운송	자동차	화장품 의류	호텔 레저
7 월초	215.5	82.9	310.6	223.2	72.7	68.4	79.1	47.9	54.1	31.6	-6.6	9.3	33.7	18.6
현재	233.1	70.6	454.1	228.8	79.5	64.0	105.5	58.0	82.3	34.9	10.8	8.8	39.7	16.5

	미디어 교육	소매 (유통)	필수 소비재	건강 관리	은행	증권	보험	S/W	IT H/W	반도체	IT 가전	디스플레이	통신 서비스	유틸 리티
7 월초	42.4	47.3	16.1	39.7	9.3	46.4	20.4	20.9	95.7	570.5	196.3	90.0	15.3	-21.7
현재	42.5	44.2	16.2	39.9	11.5	67.1	27.5	19.0	122.5	601.3	240.7	66.1	17.8	-28.7

로: FnGuide 컨센서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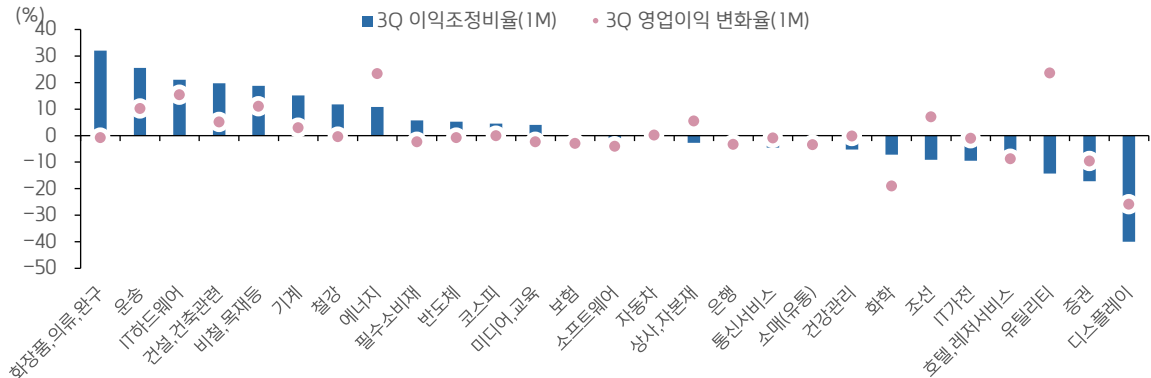
이익모멘텀 확산을 통한 순환매 흐름 전망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반도체를 비롯한 초대형 업종은 이미 컨센서스 상향이 상당 부분 선반영된 상태였던 만큼, 2분기 실적 발표를 계기로 증시 전반의 실적 전망이 큰 폭으로 추가 개선되지는 않았다. 다만, 최근 한달 사이에 이루어진 3분기 실적 전망 조정 흐름을 살펴보면, 반도체 이외의 업종으로 이익 개선 모멘텀이 확산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업종별 3분기 이익조정비율(1개월)을 살펴보면, 운송(+25.5%p), IT하드웨어(+21.1%p), 건설·건축관련(+19.8%p), 비철·목재등(+18.8%p), 기계(+15.1%p), 에너지(+10.8%p) 업종에서 이익 모멘텀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운송은 중동궤 지정학적 리스크로 우회 항로가 장기화되며 해상 운임이 강세를 이어간 영향이 컸고, IT하드웨어는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서버방 부품 수요 증가라는 구조적 수혜가 지속되고 있다. 건설·건축관련은 데이터센터·반도체 등 산업 인프라 투자 확대에 수혜가 강화됐고, 비철·목재등은 AI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비철 금속 가격 강세가 실적 전망을 뒷받침했다. 기계는 반도체 설비투자 확대의 수혜가, 에너지는 정제마진 및 재고평가이익 효과의 지속이 각각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반면, 디스플레이(-40.0%p), 증권(-17.1%p), 호텔·레저서비스(-9.5%p), 화학(-7.1%p) 업종은 이익 모멘텀 둔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디스플레이는 AI 부품 원가 부담이 예상보다 거세지며 실적 회복 속도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졌고, 증권은 2분기 정점을 찍었던 거래대금이 3분기 들어 빠르게 둔화되며 브로커리지 수익 둔화 우려가 부각됐다. 호텔·레저서비스는 사업 구조조정과 시설 리노베이션에 따른 일시적 매출 공백이 겹쳤고, 화학은 2분기 실적을 견인했던 유가 상승 효과가 소멸되는 가운데 중국발 공급과잉이 재차 부각되며 스프레드가 축소된 영향으로 판단된다. 결국, AI 관련 구조적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익모멘텀이 반도체 중심의 쏠림에서 벗어나 확산되는 상황임을 감안 업종 분산 및 순환매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코스피, 업종별 3Q26 이익조정비율과 영업이익 변화율(IM)



자료: FnGuide 컨센서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RX300 중, 3분기 영업이익 및 EPS 이익조정비율 개선 및 상대강도지수 과열되지 않은 종목군

종목코드	기업명	시가총액 (십억 원)	시장 구분	W126 업종	영업이익증가율 (YoY)		P/E (F. 12M)	P/B (F. 12M)	주가 수익률(%)		
					2026	3Q26	(배)	(배)	1M	3M	YTD
A009150	삼성전기	104,272	KS	IT 하드웨어	110.9	126.6	44.23	8.12	9.5	31.6	447.5
A01245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60,174	KS	상사, 자본재	49.7	44.3	22.74	4.47	33.4	-6.6	24.0
A010120	LS ELECTRIC	29,880	KS	기계	67.5	82.8	42.87	10.28	11.1	-16.5	116.5
A298040	효성중공업	26,640	KS	기계	50.7	50.9	26.14	7.11	12.5	-20.0	60.4
A096770	SK 이노베이션	21,284	KS	에너지	1,778.3	178.8	9.97	0.80	7.7	9.0	24.4
A011200	HMM	19,997	KS	운송	6.7	92.0	13.91	0.70	5.2	7.8	3.4
A035720	카카오	17,143	KS	소프트웨어	38.8	25.2	21.25	1.38	10.4	-3.6	-35.6
A010950	S-Oil	16,054	KS	에너지	1,710.5	340.4	6.70	1.31	-2.8	28.7	71.8
A278470	에이피알	14,451	KS	화학품의류완구	107.4	103.0	19.50	11.80	4.9	-1.0	67.1
A006260	LS	9,781	KS	기계	90.0	92.0	13.33	1.42	18.1	-37.3	56.8
A028050	삼성 E&A	9,418	KS	건설, 건축관련	24.0	41.0	10.96	1.61	22.6	1.4	99.8
A090430	아모레퍼시픽	7,990	KS	화학품의류완구	43.7	27.6	23.04	1.59	16.5	17.7	14.3
A353200	대덕전자	5,604	KS	IT 하드웨어	462.4	214.0	19.75	4.49	-6.1	-14.7	140.8
A222800	심텍	4,305	KQ	IT 하드웨어	1,967.4	537.5	15.78	4.50	15.5	10.9	132.8
A214450	파마리서치	4,296	KQ	건강관리	26.6	18.1	18.81	4.72	26.5	40.2	2.6
A028670	팬오션	3,084	KS	운송	37.4	41.2	6.34	0.47	14.5	-0.2	49.9
A375500	DL 이앤씨	2,755	KS	건설, 건축관련	48.5	9.0	6.37	0.50	23.0	-4.3	73.0
A357780	솔브레인	2,586	KQ	반도체	47.2	50.5	13.54	1.91	20.5	-15.2	26.9
A007070	GS 리테일	2,232	KS	소매(유통)	24.2	12.4	9.24	0.61	3.3	1.7	32.8
A103140	풍산	2,214	KS	비철, 목재등	43.4	154.4	8.16	0.80	31.7	-6.5	-25.8
A098460	고영	2,039	KQ	IT 하드웨어	227.7	215.8	31.76	4.69	21.3	-11.7	30.6

자료: FnGuide 컨센서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8월 20일 현재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은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